

고은 불교대하소설

어떤 사연

때

배에서 풀어진 뽕나무 두개를 필사적으로 확보한 인담은 그것에 또 하나의 목숨을 의지하였다. 남자 소식이 그에게 안긴 채 '으...'라고 신음하는 것을 과도더미가 냅다 덮어씌웠다.

다시 그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머리칼과 얼굴이 바닷물에 씻겨질대로 씻겨질 수 있었다.

리의 고퍀과 한미리의 호랑이를 잡은 경력은 포수들의 세계에서는 제법 으스스했던 자랑이었다.

그런 그가 청천강 위쪽 묘향산 밑 주막에서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 주막의 골방에 들어눕고 말았다. 그가 지닌 호랑이가 죽이나 고퍀을 따워 그리고 사슴을 따워 한가지씩 싸구려로 내주어야 우선 몇 차례의 약과 죽을 대주는 주모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보현사에서 백일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영변의 장교(將校)부인과 그의 외동딸이 먼 길을 앞두고 그들을 태우고 갈 나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장교가 보낸 나귀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머니와 딸은 할 수 없이 납작한 주막에 들어 우선 햇빛을 피하고 있었다. 거기서 딸의 밝은 귀에 어떤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공포롭게도 그 주막은 주모도 집을 비웠고 주막에 들어올 손님도 없었다.

딸은 신음소리에 다가갔다. 주막 뒤란의 골방에 이르렀다. 문짝을 열었다. 비릿비릿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어두운 방안에 처참한 눈이 있었다. 딸은 그 방안에서 한 우람한 사내가 누워서 진땀을 흘리며 연방 신음소리를 내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지극히 맑은 의식 안에 이미 한 사내가 전국의 길고 깊은 산중을 횡행단신으로 떠도는 광경이 담겼다. 또한 그 사내 곁에 놓여진 흥포도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군인의 기상으로 살아 오는데 따라 그런 사내에 대해서 담대하였다.

"일어나시오, 여기에 더 있다가는 병을 낫기는 커녕 다른 재난을 당하기 십겠어

아무튼 딸이 부축해 나온 병든 사내는 그런 중에도 흥포는 꼭 한손에 들고 있었다. 한눈에 포수임을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난감하였다.

"뎌 사람이려나?"

"저도 몰라요, 어머니."

"어릴 생이냐?"

"이 사람 여가다 두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마음이 놓일만한 곳에 옮겨 두겠습니다."

"으음... 기도 끝에 하필 이런 인연이라 데냐" 라고 어머니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딸의 일을 그대로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마디 참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님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더구나 무슨 병인지 알아보지도 않은채..."

그런 다음 음식은 이정의 집에서 정성껏 공주리에 담아다가 차려내는 것이었다.

수는 상투조차 풀어서 오랜만에 더운 물에 몸을 씻었다. 몸을 방에 걸러 움막달락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토록 목간을 할만큼 살아남 것이 이상한 노릇이었다. 그는 줄곧 그를 구조해낸 남자의 관심 때문에 어느덧 병이 절반 이상 나아진 상태였다.

과연 그는 그녀의 숙된 기운을 받았던 것이다.

문 한짝을 사이에 두고 뒷방에 포수가 있고 아래방에 모녀가 머물렀다. 두견새가 방의 시간을 부지런히 울어댔다. 어떤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자연으로서의 의지가 새삼 돌아오는 밤이었다.

잠자리아 새 이불과 요를 가져다가 깔고 앉았으나 잠이 바로 올 리가 없었다. 길을 걸어 온 수고와 도리어 지나친 피로이 때문에 누가 업어도 모르도록 깊이 잠들 나뉘기 없었다.

그러고는 포수의 방도 마찬가지로. 아니 영문도 모르게 끌려오다시피한 그로서는 정작 몸을 깨닫기 한 뒤 잠자리에 놓자 그동안 사라졌던 병세가 다시 찾아와 어느새 신음소리를 이따금 내기 시작하였다.

그런 신음소리를 자정이 넘어서 두견새 소리 사이로 엿듣고 있던 남자가 잠든 어머니 곁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어찌 우리 아가씨는 이런 사람마저 도우려는 보살이고..."

영문모를 간질병 고치려 기도했는데 근본없는 사내에게 몸을 바치니 어머니는 대책이 없었다

"병이야... 짐승을 너무 많이 잡은 업장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포수입니다... 형살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 아가씨는 이런 사람마저도 도우려는 보살이고... 쯔쯔"

모녀에게는 한 사람이 보태어진 일행이 되었다. 빈 주막을 떠났다. 다행히 무거운 신음으로 누워있던 사내인데도 억지로 걸음을 견뎌하여 어두운 골방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온 뒤로 차츰 걸음걸이가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운이 허기(虛氣)가 든 양(陽)이 철저한 기도로 다져져 빛나는 음(陰)으로부터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인지 몰랐다.

잠자리아 새 이불과 요를 가져다가 깔고 앉았으나 잠이 바로 올 리가 없었다. 길을 걸어 온 수고와 도리어 지나친 피로이 때문에 누가 업어도 모르도록 깊이 잠들 나뉘기 없었다.

그러고는 포수의 방도 마찬가지로. 아니 영문도 모르게 끌려오다시피한 그로서는 정작 몸을 깨닫기 한 뒤 잠자리에 놓자 그동안 사라졌던 병세가 다시 찾아와 어느새 신음소리를 이따금 내기 시작하였다.

그런 신음소리를 자정이 넘어서 두견새 소리 사이로 엿듣고 있던 남자가 잠든 어머니 곁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보현사에서 백일기도 올린 남자와 병든 포수가 낳은 딸이...

그녀로서는 두고 온 아버지가 평소 해가 질 무렵 내뿜는 몇마디 말이 떠올라서 그 때문에 잔뜩 한 모금을 먹어버린 난감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곧 가야한다. 이제 너만 어디다 맡긴다면 이승에서 내가 할 일은 다하는 셈이다... 나야 어서 네 예미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한다..."

"나는 네가 문둥이한테라도 시집가기를 바란다. 네 마음은 그런 문둥이까지도 반드시 낫게하여 빛나는 자아비로 만들터인즉..."

"나는 가야한다. 나도 급하거니와 네 예미도 나를 애타게 기다린단다..."

이런 말을 하는 늙은 아버지는 도무지 어느 때의 아버지가 아니어서 어딘지 혼백이라도 나가버린 빈 사람인양 헛되게 일췌었다. 어머니를 말할 때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바람을 적시는 것도 어떤지 흔적이 나가버린 인상이었다.

아버지가 8도의 산중을 포수로 떠도는 동안 그의 정처없는 세월이 흘러갔다. 너무 많은 멧돼지와 사슴 노루 그리고 멧마

요. 어서 일어나시오."

하고 그녀는 누워있는 사내를 일으켜 안았다. 진땀이 속 들어갔다. 눈땀이 꼭 끼진 눈에서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다. 무릇 사람이란 음양이 서로 만나 하나의 몸이 되었을 때가 눈빛이 가장 빛나고 힘찬 법이다. 그래서 혼례를 마친 첫날밤의 신방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눈빛이 부딪치는 곳이기도 한 것인가.

아무튼 병든 포수의 그런 힘찬 눈빛 때문에 그를 일으켜 세운 백일기도의 맑은 경지에 있던 장교의 딸도 심복할 정도였다.

그녀는 간밤 묘향산 밑의 한 처사가 꾸려나가는 객관(客館)에서의 고퍀문에도 그 사내를 다그쳐 세워된 것인지 모른다. 품속이었다. 한 사내가 여러마리의 뿔수, 호랑이와 곰 그리고 멧돼지들에 둘러싸여 잡아먹히려는 순간 그녀가 달려가 그 사내를 덮었다. 그랬더니 맹수들은 저마다 아가리 속의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술술 돌아가는 것이었다.

내 기다리던 나귀는 보이지 않았다. 한나절 같이 평평하게 걸어서 한 천수담(天水窟) 마을에 이르렀다. 마을 이정(里正)을 찾아가다. 비록 덩기머리의 남자일망정 말소리가 영롱하고 힘찬 것이 상대방을 압도하였다.

"여기서 하룻밤 신세를 저야겠습니까. 일행 중에 온전히 못한 사람도 있어서..."

"어디 가시는 누구신지..."

"박천 군박의 장교 이길준장수의 식구입니다."

"그러시다면 어찌 하룻밤 머물지 못하시겠습니까, 누추한 곳이지만 이 마을에는 지난해 정배(定配)된 바 있던 한양 조항관의 처제였던 별당이 비었습니다."

이정은 새사람을 이정의 집 위쪽의 숲에 예워싸인 한 집으로 안내하였다. 우선 뉘둘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 불을 땀다. 늦은 여름이지만 뿔 씻을 물을 푸집하게 데워 놓기까지 하였다.

밖의 토방에서 밤공기를 실컷 쏘아다가 포수의 방문을 가만히 열었다. 그 방으로 들어갔다. 신음소리가 푹 멎었다.

남자가 툭툭타타 아주 작은 소리로 포수에게 속삭였다.

"이대로 가만히 계시요..."

포수는 신음소리 따위를 낼 생각도 용담 없었지 이 뜻밖의 행복에 당황과 용기를 뒤섞어 남자의 숨결로 실컷 얼굴이 더워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두사람은 운운의 피가 뜨거운듯 뽀뽀하지 않고 그렇게 누워있었다. 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그 마음에 물이 따라가서 하나가 되려고 있었다.

이윽고 누가 먼저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댔는지 분간할 수 없게 두 사람의 몸은 붙어져 버렸고 그것은 다시 청청 뱀파리로라도 감겨져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포수의 신음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는 그 이전의 병든 몸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아직 다다르지 못한 환희의 절정을 앞두고 거기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현상적인 음악으로서의 무의식이었다.

정작 그런 포수에 대해서 남자는 이미 길듯이 벗겨진 상태임에도 태연하게 사내의 힘을 도발할 따름이었다.

"으"라고 마치 번어리가 어떤 예외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녀가 첫 아픔을 참는 한미리의 신음소리를 냈을 때는 포수의 몸이 그녀의 품안에 한없는 부족으로 풀리는 만족을 위하여 들어간 뒤였다. 캄캄하고 무서웠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대로 빠져들어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싶었다.

이 놀라운 합치의 사건을 아랫방의 어머니가 잠든 척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녀로서는 묘향산 백일기도의 영험이 이렇게 험상궂은 일로 나타난 것 자체가 무서웠고 그 무서움에 조금도 항의할 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딸의 영문모를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인데 근본 없는 사내를 만나 그 사내한테 몸을 바치는 이 수습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로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남자는 포수를 일으켜서 새벽에 길을 나섰다. 이미 그녀에게는 어머니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마음껏 착한 계모여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생모가 떠난 뒤 사후가 멀다하고 후위로 들어온 여자가 바로 이 생모 못지않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렇게해서 두사람의 억지 가시버시는 될 수 있는 한 박한에서 먼 곳을 향하였다. 그것이 황해도와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 서쪽 들녘에 이르러 그들의 세월이었다. 거기서 낳은 딸이 바로 인담과 함께 표류된 남자였던 것이다.

그림·조향숙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나 개인별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을 기획·제작
 - 사찰의 역사, 배움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살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할 것새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무차별 맞춤을 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풀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은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서울서 은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